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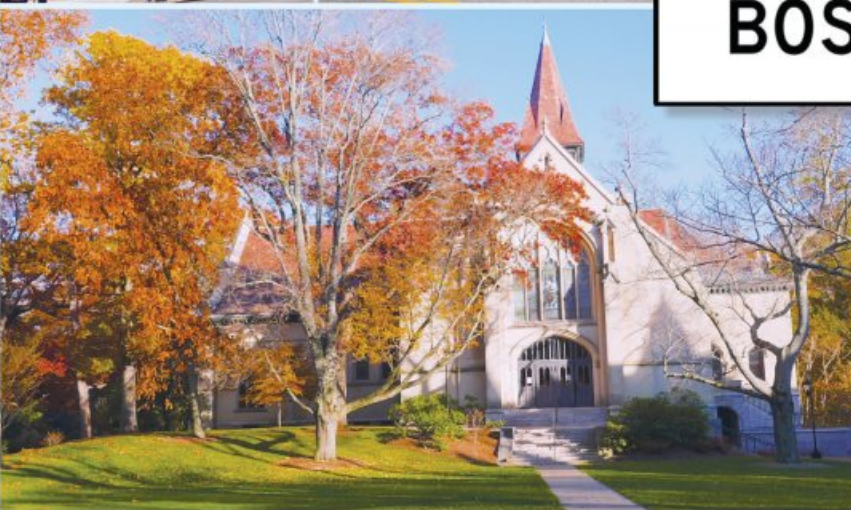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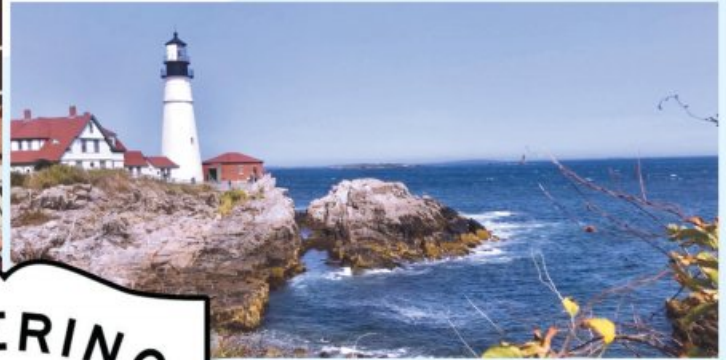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이화
동창

2023 *Back* to the *Beginning*



MARRIOTT
BOSTON NEWTON

OCT 26-29, 2023

초대의 시

고운님, 정다운님들
푸른 가슴과 설레임으로
북동부 끝자락 보스톤에서
오실 옛 모교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얼싸안고
두리둥실 춤을 추며
함박 웃음을 피워보면 어떨까요?

이화사랑 강줄기가
민족사랑으로 번어가고
온 세상 향해 훨훨 날아
약한 곳에 힘을 주고
절망 자리에 소망을 심어주는
진선미의 향기가
바로 그대들이십니다.

모두 모두 오시옵소서!
10월 어느 날의 정겨운 추억을
우리 함께 만들어보십시오!

- 김지영 (82교육) -



이화사랑 후원을 감사드립니다.



\$2,000 - \$7,000

김홍혜 (64가정)
양덕자 (68독문)
김지영 (82교육)
김경애 (70의학)
이혜원 (70약학)
강구미 (65 기독교)

\$1,000

남훈선 (71시청각)
박순혜 (73국문)
백정희 (74간호)
신명호 (62간호)
이길자 (66의학)
조순자 (67약학)
황성미 (75식품영양)

\$500

권만강 (67가정)
김정주 (69불문)
김옥경 (76과학교육)
김혜련 (80생물)
박기춘 (63교육)
이민정 (69식품영양)
이명숙 (68생활미술)
이영자 (63영문)
이지원 (72약학)
한성희 (72영문과)

\$100 - \$400

이선민 (91불문)
이혜경 (74조소)
이계영 (01종교음악)
권정자 (58의학)
민에스더 (63영문)
최신자 (86성악)
이혜연 (97피아노)
신은경 (88법학)
전신애 (79화학)
서효자 (67영문)

Contents

초대의 글

김지영 /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4
정현숙 /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축하의 글

김은미 /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5
이명경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6
Bishop Mary Swenson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이사장	

이화 소식	7
-------	---

2022 북미주 지회연합 총회를 마치고	8
-----------------------	---

지회 소식	9
-------	---

동창회 장학금 / 기금 소식	19
-----------------	----

국제재단	20
------	----

연도별 총회 개최 지회	21
--------------	----

2023 북미주 지회 연합회 지회장	
---------------------	--

2023 보스턴 총회 일정 및 안내	22
---------------------	----

2023 “Back to the Beginning” Boston 참가 신청서	23
--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공문	24
--------------------	----

광고	25
----	----

2023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보

발행인 김지영 (82 교육)
 편집인 공정원 (83 영문), 이수용 (06 생물), 황성미 (75 식품영양)
 표지 디자인 공정원 (83 영문)

초대의 글



김지영 (82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사랑하는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마다 각 지회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멋지고 의미 깊은 총회를 열어 오신 우리 지회장님들, 이사님들, 고문님들의 수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2023년 10월 26일에서 29일까지 보스턴에서 12년 만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보스턴은 미국 역사의 뿌리가 있는 곳이고, 이화여대의 역사에도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1886년 이화학당을 세우신 스트랜튼 선교사님을 과송한 감리교 해외선교부가 보스턴에서 발족되었고, 이화학당의 6대 당장이셨으며 지금의 이화 캠퍼스를 짓는 데 무한한 수고를 하신 엘리스 아펜젤러 당장께서 졸업하신 웰즐리 대학이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또한 웰즐리 대학은 이화여대의 자매결연 대학입니다.

올해 보스턴 동창회 총회의 모토는 “Back to the Beginning”입니다. 이화학당, 이화여전 그리고 이화여대가 되기까지, 세우고 발전시키고 또 뒤에서 후원하신 분들의 그 큰 사랑과 인내와 희생을 기억하며, 그 뜻을 따라 빛진 자의 마음으로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펼쳐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10월 총회에서 만날 북미주 동창님들, 총장님 그리고 총동창회장님들과 본교에서 오실 귀하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교의 반가운 소식과 발전상,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듣고, 저희 동창들도 모교의 발전을 위해 한 모퉁이에서 함께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일 여행을 통해서 보스턴 시내의 오랜 역사 깊은 건물과 거리들, 또 세계 최고의 명문인 하버드 대학, MIT, 웰즐리 대학, 아름다운 보스턴 항구, 미국 독립전쟁 발원지이며 미국의 정신을 세운 문학가들의 집들이 즐비한 콩코드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2박 3일 여행 동안 뉴잉글랜드의 가을을 만끽하시고, 함께 여행하는 동창들과의 사귄과 만남을 통해서 기쁨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또 호텔에서 이틀간 다양하고도 특색있는 강좌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스턴지회 동창들은 소박하면서도 정다운 분들이십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지회이지만, 정성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북미주 동창님들, 모두 오셔서 이화 사랑을 확인하시고, 기쁨을 한아름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정현숙 (87 체육)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안녕하세요?

지난해에는 팬데믹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북미주 지회연합 총회가 남가주 동창회 주최로 Los Angeles 에서 대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 반가운 얼굴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마냥 즐거워하는 동창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참 너무나 평범한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유서 깊은 도시 보스턴에서 지난해의 감동을 이어가려 합니다. Boston 회의의 주제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Back to the Beginning”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미주 동창들께서는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처음 취지처럼 ‘진선미’의 이화정신을 계속 간직하고 이화인으로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화를 추억하고 사랑하는 이화인의 열정으로 행사의 수익금을 통해 국제재단 장학금이나 모교 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쪼록 많은 동창분들이 북미주 지회연합회에 참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22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모든 참가자들은 김은미 총장님의 말씀을 통해 모교의 놀라운 발전상을 들으며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올해에도 학교 발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신 김은미 총장님의 활약상을 기대하며 모교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국 땅에서 마음과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은 지회라며 겸손해 하시던 김지영 지회장님과 임원, 그 지역 동창들이 다양한 클래스, 일일관광, 총회 전 관광 여행 등 열심히 준비하고 계심을 알기에 올해 열리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행사에 매우 기대가 됩니다. 부디 많은 동창님들이 꼭 보스턴 행사에 참석하셔서 동창 및 선후배간의 정을 돈독히 쌓으시고, 모교 사랑과 열정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북미주 지회연합 총회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 유의하셔서 10월 말 보스턴에서 반갑게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글



김은미 (81 사회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사랑하는 미주지역 동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제17대 총장 김은미입니다.

지난해 10월, 3년만에 남가주에서 열린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하여 각 지회에서 오신 동창 여러분과 함께했던 활기차고 즐거운 만남이 생각합니다. 먼 해외에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교인 이화를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동창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는 보스턴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Back to the Beginning” 이화의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며, 또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이화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1886년 스크랜튼 선생님께서 이화를 세우시면서 조선의 여성들에게 신앙과 교육의 희망을 심어 주셨던 이화의 첫 시작처럼, 오늘날 이화가 세계적 여성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많은 동창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과 나눔, 사랑과 봉사’라는 이화 정신의 전파자가 되어 주고 계신 모습이 우리의 “Back to the Beginning”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137주년을 맞이하는 이화는 ‘Ewha Vision 2030+’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혁신 플랫폼’ 비전 아래 5대 중점 목표와 100대 사업을 수립하여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발전을 위해 물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화는 창립 15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격화, 여성 고등교육, 여성 의료에 대한 세계적이고 독보적인 이화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이화의 역사를 고증하며, 또한 21세기 대학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에 부합하기 위해 미래 캠퍼스를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래를 향해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명의 학생에서 시작한 이화가 25만명의 동창이란 열매를 배출하는 아름드리 거목이 된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이화가 담대히 맞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 해외에서 이화의 이름으로 소통하고, 이화 정신의 뿌리를 찾고, 그 마음을 나누고 계시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빛나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다시 힘차게 도약하는 이화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동창 한 분 한 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10월 보스턴에서 모두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글



이명경 (77 무용)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믿음의 선배들이 일궈놓은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선한 영향력

사랑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선후배 이화 동창들께 문안합니다.

모교는 창립 137주년을 맞이하고 총동창회는 창립 115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에 북미주 지회연합회 보스턴 총회의 개최 소식을 들으면서, 모교와 총동창회를 향한 선후배 이화 동창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과 열정에 새삼 큰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이 행사들의 면면을 정성스레 준비하느라 애쓰시는 보스턴 지회 김지영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믿음의 오랜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나눔과 섬김의 이화 정신을 근간으로, 긴 시간 이화국제재단과 연합하여 지속적으로 모교와 총동창회에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땅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 동창지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든든히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더욱 감사가 넘칩니다.

제18대 총동창회는 지난해 11월에 모교 대강당에서 2,000여 이화 동창과 함께 '이화인의 밤-이화 가족이 이화를 응원합니다' 제하의 행사로 선물 같은 한해를 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 3월에 총회를 거쳐 제19대 회장단과 임원들이 새롭게 세워졌기에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화동창 선후배들께 총동창회의 변화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올해에도 총동창회는, '4월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외 지회장 초청 간담회'와 '5월 창립 137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그리고 '9월 대바자회'와 '11월 이화인의 밤' 등을 계획하고 있으니 멀리서나마 기도로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 북미주 지회연합회 보스턴 총회를 통해 또 하나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길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이화 동창 선후배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화국제재단이사장 축하의 글



Bishop Mary Ann Swenson
Ewha Foundation President

Dear Alumnae and Friends of Ewha,

With the worldwide pandemic moving farther behind us, it is a perfect year to celebrate the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and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coming together in Boston. And it is appropriate that the theme of the event will be "Back to the Beginning." On my trips to Korea I often visit the places of rest of the first missionaries. Their sacrificial love made such a difference for future generations. They established a school for women and planted hope.

I think about how President Kim mentioned a couple of years ago about refugees from Afghanistan coming to Korea. In their country girls are no longer allowed to attend school. Once again the vision of a great Woman's University in Korea is able to reach out and plant hope for young women globally.

The Foundation helps provide scholarships so this can happen. And the new Global Hope Fund makes possible a far reaching witness of the university. We have much to celebrate after 137 years as we go "Back to the Beginning."

I look forward to a great time with you in Boston next fall.

Mary A. Swenson
Bishop Mary Ann Swenson
President, IFEWU

이화 뉴스

'글로벌 여성 지도자 육성'하는 사명 높이 평가받아 '2023년 Building Bridges Award' 수상



모교가 태평양세기연구소 (Pacific Century Institute, PCI)가 수여하는 제23회 'Building Bridges Award'를 수상했다. 태평양세기연구소는 한태평양 국가와 사람들 사이에 교류를 증진하고 관계를 개선하고자 1980년대에 설립된 비영리 국제 조직이다.

2000년부터는 "Building Bridges Between Countries and People"이라는 PCI의 미션에 공헌한 인물 또는 기관을 선정해 Building Bridges Award'를 수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2016년)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2017년)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이다. 본교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으로서 특히 조선 후기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소녀들과 여성들을 교육하고, 여성 환자를 치료하는 '보구녀관'을 설립한 전통을 이어 오늘날까지 '여성 교육' 및 '여성보건과 의료'라는 두 축의 임무를 공고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랑, 헌신, 나눔의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 학문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을 교육하고 지도자로 양성하고 있는 교육 미션을 높이 평가해 이 상을 수여한다고 설명했다.

40번의 수술 고통 이겨내고 23년간 베푸는 삶 실천한 이지선 교수, 모교로 돌아와



발달이 느린 아동을 위해 놀이치료를 공부하고자 했던 유아교육과 학생은 모교로 돌아와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다. 이지선 (유아교육과 ▪ 01년졸) 교수는 본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대 (Boston University)에서

재활상담학 석사학위를, 미국 컬럼비아대 (Columbia University)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미국 UCLA에서는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엔 갑작스러운 사고로 40번이 넘는 수술을 받고 당시 3급 장애진단을 받았다. 2023학년도 1학기 본교 교수로 돌아온 이지선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장애인복지론>, <1학년세미나(사회대)> 수업으로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을 좋아하는 그에게 모교로의 교수 임용은 "너무 큰 강도의 행복"이었다. 모교에서의 첫 수업을 이틀 남기고 밝게 미소 짓는 얼굴에서 그의 설렘이 느껴졌다.

<출처: 이대뉴스>

2023년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총회 Keynote Speaker 석지영 교수를 소개합니다.



석지영 교수는 하버드 로스쿨의 법학과 교수다. 헌법, 형법 및 그 절차, 가족법, 예술, 공연에 관한 법을 가르치고 있다. 하버드 법대 최초 아시아 여성 종신 교수로 화제가 되었다. 2006년에 교수진에 합류하기 전에, 그녀는 미국 대법원의 데이비드 수터 판사와 미국의 해리 에드워즈 판사의 법률서기로 일했다. 그녀는 예일(B.A. 1995), 옥스퍼드(D.Phil 1999)에서 마셜 장학생이었고, 하버드 로스쿨(J.D. 2002)에서는 폴 & 데이비드 소로스 펠로우로 교육을 받았다. 그녀의 책, 'At Home in the Law'에서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legal system 안에서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2010년에 '최고의 법률서적'에 수여하는 '허버트 제이콥' Herbert Jacob Prize 상을 받았다.

2016년에는 하버드 법대 졸업생들이 뽑은 헌신적인 교육자, 멘토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는 '최고 교수상'인 '앨버트 삭스-폴 프로인드 상(Sacks-Freund Award for Teaching Excellence)'을 수상했다. 또 그는 뉴욕 매거진의 컬럼니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21년에 "위안부 이야기의 진실을 찾아서" (Seeking the True Story of the Comfort Women) 발표해서 하버드 교수인 J. Mark Ramseyer를 논리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공개했다.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였던 한국 여성들이 강제로, 또 강압으로 끌려간게 아니라는 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켰다.

그녀가 2013년 쓴 자서전적 에세이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에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 "영어 한 마디 못하면서 미국의 교실에 앉아 있었을 때, 스스로의 무능에 대한 공포와 수치심은 내 어린 마음 속을 잠식했다. 이민자들에게는 공통적인 경험일 것이다. 매일 학교에서 살아 남는 것은 그 자체로 괴로운 시련이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나는 이중 언어 및 이중 문화라는 이민자 생활의 본질과 대면할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우리 모두 장영주나 김연아가 될 수는 없다. 그래도 괜찮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추구하는 행위의 핵심은 그 과정에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긴 인생 동안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음악은 가장 위대한 인간의 창조물이자 선물의 하나다. 자신이 요요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음악 공부를 멈춘다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놀라운 의미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의 발전을, 쓸데없이 멈추는 셈이 될 것이다. 나는 발레를 계속하지 못한 것을 지금도 후회한다. 가슴 아픈 상실이었다" "나는 한국의 딸이자 미국 시민이며, 생각의 세계의 학생이다. 내가 이제까지 누려온 엄청난 행운의 삶은 또한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든 작품이다. 과거에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있는 부모님의 도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부모님은 내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다. 내가 누리는 좋은 것은 모두 부모님의 덕분이기에 가장 신실한 감사를 누구보다도 먼저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

<출처 북하우스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

2022 북미주 지회연합 총회를 마치고



정현숙 (87 세)

2022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남가주동창회 주최로 지난해 10월 27-30일 Los Angeles Hilton Hotel LAX 에서 연인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모교에서 김은미 총장님, 이혜선 대외협력처장, 김인한 국제처장이 참석하셨고, 남상택 총동창회장님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말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섯 분의 음대 현역 교수님들 (배일환, 김미령, 강소연, 박혜은, 곽은아), 남가주의 성악 트리오 (엄인용, 정원혜, 원순일), 남가주합창단 (지휘자 김종숙), 뉴욕, 애틀란타, 남가주 지회의 탤런트쇼 참가자, 1 부 순서를 매끄럽게 진행해 준 전소연, 김유미 동문, 2부 순서를 재치있게 이끌어 준 전문 사회자 분 등 여러분들 덕택에 행사 내내 들렸던 웃음과 박수소리가 지금도 귀에 켜힙니다.

북미주 전역에서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선후배 동창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먼 곳에서 와 주신 분들, 특히 감사합니다. 처음 만난 동창들도 어색함 없이 이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피치못한 사정으로 참석 못하셨던 분들도 마음은 우리 이화인들과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3박 4일의 행사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애써 주신 모든 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많은 수고는 행사 후 쏟아지는 따뜻한 격려와 칭찬에 순식간에 보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모든 임원과 봉사자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다섯 분의 음대 교수님들이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며 피아노,바이올린, 첼로 및 국악의 합주로 우크라이나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서울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도 연주한 이 특별한 평화의 퍼포먼스는 듣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으며 2022 Los Angeles 총회가 더욱 의미 깊고 빛난 행사로 기억되게 했을 것입니다.



지회소식

Atlanta 애틀랜타, GA 회장 김경원 (81 가정관리)



동남부의 허브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애틀랜타에는 1980년에 발족되어 반세기 가까운 동안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화여대 애틀랜타 지회가 있다. 1949년 졸업하신 원로동창부터 2010년에 졸업한 젊은 동창까지 함께 어우러져 동창간의 친목, 모교 발전,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하에, 등록된 동창 백이십여명,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창 오십여명의 규모로 매달 둘째주에 모임을 갖는다.

지난 1월에는 역대회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40여년에 걸친 이화여대 애틀랜타 지회의 간추린 역사를 들으며 향후 동창회의 지향에 관하여 의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백여년 전에 스크랜튼 여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화여대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듯이, 이제는 우리

도 시선을 더 넓게, 더 높이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개발 국가의 여성교육 장학금 참여, 재난을 당한 지구 한 가족에게 성금 전달 등을 통하여 기회가 되는대로, 능력이 닿는대로 활동을 넓혀가려고 한다.

지난 3월 13일 23명의 회원이 모여 올해 들어 두번째 대면 동창회를 했다. 모임 중에 이인순 동창(약학 69졸)께서 “마지막을 위한 준비(Well Dying)”라는 제목으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앞으로 있을 죽음에 남은 유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다. 다소 무거운 주제였으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4월 모임은 꽃들의 계절을 맞이하여 애틀랜타 근교에 위치한 Gibbs Garden으로 Field Trip을 가기로 했다. 지난 2년간의 혹독했던 코로나 위기에서 차츰 벗어나 그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하다.



Baltimore 볼티모어, MD 회장 이진숙 (70 식품영양)



매년 5월과 11월에 음식점에서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11월 총회 때 2년마다 새 회장이 선출되고, 2월 초에 간부 되시는 분들과 점심을 같이 하며 60세 미만 동창생들을 찾아 보는 노력을 금년에 해보자고 동의했다.



Boston 보스턴, MA

회장 김지영 (82 교육)



2022년의 가장 반가운 소식은 김은미 총장님의 방문이었다. 전혀 계획에 없던 행사이었기에 어떻게 맞이해 드려야 할 지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막상 총장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옛 교정의 선배 혹은 후배를 만난 듯한 친밀함과 또 반가움이 넘쳤다. 보스턴 동창들에게 모교의 발전 소식과 또 희망과 장래 계획을 넘치는 의욕과 확신으로 피력하시는 총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깨를 짚 펴고 이화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동창들이 드리는 질문에 정성껏 듣고 성실히 대답해 주셨고, 또 보스턴 동창들과의 만남을 너무나 즐거워하시며,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서, 며칠 간 우리가 고민했던 모든 기우들이 한 순간에 날아갔다. 또 감사한 것은 이 짧은 시간에 동창들이 마음으로 모여서, 2030년 발전기금 \$5,000을 지급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지난 초봄에는 갑작스레 양덕자 동창(독문 68)의 초대로 톨립 동산으로 Field Trip을 갔다. 조금은 추운 날씨였지만, 봄 처녀와 같은 설레는 마음으로 멋진 사진을 찍고, 푸짐한 식사까지 대접을 받았다. 5월에는 백구십년의 유서 깊은 Mount Auburn Cemetery를 거닐며 아름다운 자연으로 어우러진 묘소를 경험하였다. 또한 하바드에서 근무하시는 한국인 박사님



들 두 분을 모시고 “치매”에 대한 건강세미나를 실시했으며, 여름에는 Newton의 신록으로 우거진 Larz Anderson Park에서 동창 가족들이 모여 바베큐와 게임을 하며 하루를 즐겼다.

벌써 6년째 이사장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푸근한 정과 사랑이 가득하신 이해원(약학 70) 선배님께서 풍성한 음식으로 이사님들을 댁으로 초대해 주셔서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12월 첫 주 토요일 연말파티에 40분이 넘는 동창 가족들이 참석해 주셔서, 연말총회, 라인댄스 강습, 레크레이션과 풍성한 음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 Raffle 티켓을 팔아 2023년 10월에 있을 북미주 보스턴총회에 자원봉사 안내자들을 위한 티셔츠 제작비를 마련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동창회에서 함께 일하며 이루어 나갈 아름다운 만남을 기대한다. 나이에 상관없이 보스턴 지역 동창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다가올 2023년 보스턴 총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12년 만에 보스턴에서 총회를 개최하며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동창회가 큰 기쁨과 배움과 나눔이 있는 멋진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California, Southern 남가주, CA

회장 정현숙 (87 체육)



공진단 만들기 한의사인 남궁봉일 (체육 81) 현 이사장이 지난 몇년간 해마다 진행한 공진단 만들기 행사가 2022년 6월 8일 이보경 (생미 80) 전 이사장 댁에서 열렸다. 선후배 동창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정성껏 공진단을 만든 후 점심을 함께 했다. 재료비를 제외한 전액이 동창회에 기부되어 기금 모금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힐리웃볼 조성진 피아노연주회 7월 26일에는 Hollywood Bowl 에서 열린 조성진 피아노 연주회에 150 명의 동창 및 가족, 친지들이 참석했다. 맛있는 도시락과 함께 공연을 즐기고 동창회 기금까지 마련한 즐거운 행사였다.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2022 북미주 지회연합회가 남가주 동창회 주최로 10월 27일-30일 Los Angeles에서 열렸다. 북미주 전역에서 모인 선후배 400여명이 모교 김은미 총장님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행사를 가졌다. 팬데믹 이후 첫 대면 모임이라 불안한 마음도 많았으나 모든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어 몇달간 열심히 준비한 남가주동창회는 큰 보람을 느꼈다.



새해 모임 2023년 1월 15일에는 임원들과 각부서 단과대학 회장들이 장계원 (도서관 76) 전 이사장택에서 모여 새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윷놀이, 빙고게임, 푸짐한 상품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월 18일에는 남가주 동창회를 든든하게 후원해 주시는 이사님들을 위해 남궁봉일 새 이사장이 신년회를 준비했다. 이사간의 친목을 한껏 높인 즐거운 모임이었다.

LACMA 한국 근대사 전시회 단체 관람 2월 14일에는 이화여대 동창 50명이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CMA)에서 주최한 한국 근대사 전시회를 관람했다. 미국에서, 그것도 권위 있는 LCAMA에서 한국 근대사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뿌듯함 가운데 Valentine's Day를 함께 기념하며 임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초콜릿과 캔디를 함께 나누었다. 훈훈한 선후배간의 만남이 귀한 전시회와 함께 더욱 뜻깊게 이뤄진 하루였다.



2023 Building Bridges Award 수상 이화여대가 Pacific Center Institute 재단이 매년 수여하는 2023 Building Bridges Award 를 수상하였다. Beverly Hills Hotel 에서 2월 7일 열린 시상식에 김은미 총장님과 10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이화여대의 파워를 과시했다.

2023년 행사 안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진단 만들기, 헐리웃볼 임윤찬 피아노 콘서트 (200 티켓 확보), 화장법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Cleveland 클리블랜드, OH 회장 허선우 (04 회화판화)



클리블랜드 지회는 규모는 작지만, 매달 만남을 가지며 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료애와 지지를 나누며 유대감을 강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소중한 동창들의 경험과 기억을 나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매직! 선배님들을 통해 항상 배운다.

2022년 12월 연말모임에는 오랜만에 한국에서 다시 클리블랜드를 방문한 박영미 동창이 함께하여 더없이 반가운 만남이었다. 그사이 출판한 시집을 선물로 받았고, 시인이 직접 클리블랜드에서 지내던 날들을 생각하며 시를 낭독할 때에는 시인의 사랑과 그리움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다.

2023년 1월, 2월 모임에서는 올 한해 만남을 계획하며 이사진을 구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올해도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자녀를 위한 단체인 Center for Domestic Violence 와 Womankind 지원과 모교 국제재단 후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회소식

Denver 덴버, CO

회장 김선희 (94 문헌정보학과)



덴버지회는 2022년도 2월 신년 총회 겸 떡국 모임을 시작으로 동문회 활동을 재개했다. 펜데믹 동안 전혀 나오시지 못했던 동문들도 오랜만에 참석하여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1년 동안 회장 대행으로 활동하던 김선희 동문(94년 문헌정보학과 졸업)이 정식 회장으로

선출되어 총무 박성원 동문(91년 교육공학과 졸업), 회계 이해경 동문(89년 물리학과 졸업)과 함께 새로운 회장단 체제로 2년 동안 덴버지회를 위해 애써 주기로 했다.

5월에는 덴버지회의 가장 대선배님으로 존경을 받으셨던 강경순 동문(57년 영문과 졸업)의 타계 소식을 접했다. 많은 동문들이 강경순 선배님의 Memorial Service에 참석하여 동문회와 덴버 한인 사회의 귀감이 되셨던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에는 김정자 동문



(66년 수학과 졸업)이 덴버 시내에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에 모여, 개업을 축하하며 선배님들께서 이민사회에

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등의 이민 초창기 경험담을 듣고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2023년 2월에는 신년 총회 겸 떡국 모임을 하였는데, 1960년부터 2018년 졸업생까지 58년을 아우르는 세대가 함께 모여 '이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회계 보고와 작년 10월에 있었던 LA 총회 후기, 올 10월에 있을 Boston 총회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참석 권고, 그리고 이사직에 대한 설명과 우리가 국제재단에 보내는 장학금이 모교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공지하는 순서로 회의를 이어 나갔다. 회의 후에는 모교에서 보내준 '이화 수첩'과 '탁상용 달력'을 배포하고 차기 모임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덴버지회는 작은 규모이지만, 꾸준히 모교의 발전과 후배 양성에 이바지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모임 활동을 계속해 나가려고 한다.

Detroit 디트로이트, MI

회장 오주리 (82 섬유예술)



2022년 5월 15일, 홍화 레스토랑에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실내에서 동창회가 열려 동문 33명이 참석하였다. 주현진 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박은하 동문의 선창으로 교가를 불렀다. 황수영 회장이 2021년 총회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였고, 졸업 50주년을 맞은 차승순, 최혜란 동문에게 이화 브로치를 선물하였다.

고령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이영희 대선배님(57년 졸업)은 손자가 모시고 와 참석하셔서 동문 자리를 빛내 주셨다. 윤미숙(89), 신수영(97), 유지현(00), 신지연(11) 4명의 동문이 이날 처음 참석하였다. 홍옥경 동문의 식사기도로 즐거운 친교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수확자 박형주(전 아주대총장) 교수님이 우리 주변의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를 강의했다. 간호사로만 잘 알려진 나이팅게일이 크림전쟁에서 데이터분석을 통해 총상이 아니라 야전병원의 비위생적 환경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간파, 통계학으로 정부를 설득해 전장의 위생 병동을 얻어낸 이야기,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폭풍우, 거대한 눈보라 같은 장면들을 CG로 재현할 때는 방정식이 사용된다는 이

야기, 수학 이론 웨이블릿(wavelet)으로 미술 작품의 위작을 가려낸다는 이야기 등을 강의했다.

2022년 12월 3일, Italian American Baquet Center에서 30명의 동문과 배우자 등 총 40명이 참석하였다. 1부는 이은정 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교가제창, 황수영 회장의 지회 소식 발표, 장서희 동문의 기도로 식사와 동문간의 친교 시간을 가졌다. 2부는 주현진 동문의 사회로 게임 시간을 가졌고, UOM 박사과정 김선희 동문의 피리와 지도교수 Dr. Hilary Finchun Sung의 해금 공연이 있었다. 올해는 영화제처럼 입구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모든 동문들의 사진을 찍어서 포토제닉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날 오은경(영어교육 95), 이은영(피아노 10), 류수민(행정 13), 임채연(언론정보 17), 임연지(컴퓨터공학 20), 황승우(교육 20) 동문이 처음 참석하였다.



지회소식

Houston 휴스턴, TX 회장 양영희 (93 조소)



휴스턴 지회는 2022년 11월 모임에서 양영희(93 조소) 동창의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만들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12월 크리스마스 파티는 작년에도 집을 오픈해 주신 박영일(72 의류직물) 동창님 댁에서 열렸다. 이 날 34명의 동창분들이 모인 가운데 새로 오신 동창분 소개와 정성스런 식사를 나누며 담소를 즐겼다. 또, '르네상스 작가 홀바인'에 대한 재미난 미술사 강의로 동창분들의 호응을 받았다.



3년 동안의 팬데믹으로 직접 식사대접을 못한 설날 행사인 '휴스턴 이화 구정 대잔치'가 새로운 회장단의 첫 공식 행사로 2023년 1월 20일 노인회관에서 열렸다. 26년째 쉬지 않고 해 온 이 행사는 휴스턴 지역 사회에 이화동창회의 꾸준한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활동이다. 이날 휴스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고, 식사 후 다 함께 '만남'과 '설날'을 합창하며 즐겁고 정말 마음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집으로 가시는 어르신들 손에 이명옥(75 경영) 동창님이 준비해 주신 스카프와 머플러를 선물로 드려, 더 풍성하고 넉넉한 설날 '휴스턴 이화 구정 대잔치'가 되었다. 새로 부임하신 휴스턴 총영사님(정영호 총영사님)이 오셔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



꾸준한 참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화 북클럽'은 백지민(81 건강교육) 동창님이 리더로 잘 이끌어 주고 계신다.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나누며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화 북클럽'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2023년부터는 짝수달 두번째 금요일에 정기모임을 가지며, 2월 10일 올해 첫 모임을 한 강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로 시작하였다.

3월 공원에서 아름드리 피운 꽃구경, 4월 이화 북클럽과 지역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E-Bazaar 와 5월 이화 장학금 전달식 등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휴스턴지회에서는 국제재단 휴스턴 어카운트에서 2022년 6명의 이대 본교 학생들에게 \$2,500씩 총 \$15,000을 수여했고, 매년 휴스턴지역 2명의 여학생들을 공모, 심사하여 장학금 \$1,000씩 \$2,000불을 수여하고 있다. 그리고 휴스턴의 난민지원 단체인 'Life Tree'에 \$1,000을 후원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과 후원이 가능한 것은 휴스턴 동창회의 모든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깊은 애정과 따뜻한 관심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Minnesota 미네소타, MN 회장 김정은 (80 체육)



미네소타 이화 동문회가 2월 4일 김정은 회장 자택(Vadnais Heights, MN)에서 입춘을 맞이하여 정기 모임을 가졌다. 주재강 (화학과 대학원 59 졸)과 이청빈 (통계 17 졸)을 비롯, 세대를 아우른 16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발렌타인을 앞둔 터라 붉은색이나 분홍색의 드레스 코드로 모인 이 모임에서는 함께 준비한 음식과 다과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전했다. 특히나 학창시절 게임 진행과 신세대 아이돌의 안무 벌칙으로 이어진 시간에서는 모두 웃음꽃을 피웠다.



지회소식

New York 대뉴욕, NY 회장 권순미 (85 불문)



지난 1월 28일, 대뉴욕지구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회장 권순미) 신년하례식이 85명이 넘는 동창이 모인 가운데 맨하탄 소재 BarnJoo-Union Square 점에서 열렸다. 50년에 대학을 졸업한 대선배에서부터 2021년 졸업생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동호회 조직과 신년 포부를 나누며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N. Texas 북텍사스, TX 회장 김경은 (93 행정)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북텍사스지회(회장 김경은, 이하 이대 동창회 북텍사스지회)의 송년파티가 지난 11일 오후 5시 프리리 하우스 식당 (Prairie House Restaurant)에서 열렸다. 이대 동창회 북텍사스지회 회원과 가족, 지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송년파티는 미니 음악회와 만찬, 게임 등 다채로운 순서들로 진행돼 동문 간 화합과 연합의 시간이 됐다. 미니 음악회는 이해진 (성악과 2013년 졸업), 이규일 (성악과



2014년 졸업), 조예실 (피아노과 2016년 졸업) 동문들의 연주가 있었고, 팀별 퀴즈를 통한 상품 증정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송년파티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회원들이 직접 가져온 각종 예술작품과 패션 아이템, 수제 목과 쿠키 등의 기증품들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갖기도 했다. 이후 크리스마스 캐럴과 이대 교가를 부르며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대 동창회 북텍사스지회는 “내년 5월 이화 메이데이를 기념하여 전문적인 음악회를 기획 중에 있다”면서 “이화 사랑의 연대를 확장시켜서 선후배 간의 돈독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섬김과 나눔이라는 이화 정신에 뿌리를 두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동창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Philadelphia 필라델피아, PA 회장 오성실 (68 영문과)



필라델피아지회 동창회는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델라웨어, 세 주를 포함하며 일년에 6번 모이고 있다.

2023년에는 더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마음에서 2월 첫 모임을 체리힐, 뉴저지에서 가졌다. 뉴저지 동창들의 참여로 우리 서로에게 힘을 실어 주었으며, 8월에도 그곳에서 가지려고 한다. 이번 모임에서는 본인 소개, 점심식사, 김영애 동창의 '수필이란?' 주제의 말씀과 남광희 동창의 '맛있는 약밥' 레시피를 나누는 유익한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4월에는 필라델피아의 벚꽃 많이 피는 공원에서, 6월에는 넓고 푸른 공원에 모여 피크닉을 예정하고 있다.



2022년 12월에는 성탄축하 · 송년 파티로 여름에 시작된 이대 중창단의 음악, 싱-어롱순서가 있었다. 지휘와 중창단 연습에 양경자 동창께서 열심히 인도해 주셨다. 이날 점심은 지문자 동창께서 대접해 주셨다. 이웃돕기 모금운동에 남광선 동창께서 사랑으로 많이 애쓰셨다. 그리고 필라에 있는 청소년 약물중독 돕는 기관, New Vision Center에 전달했다.

지회소식

Portland 포틀랜드, OR

회장 김미진 (79 도예)



포틀랜드는 7월에 모임이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11월에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11월에 모두 바빴고, 12월엔 독감이 유행해서 또 못 만나고, 꽃피는 춘삼월에 만나기로했다.



Seattle 시애틀, WA

회장 신인선 (85 불어교육)



아름다운 산과 호수로 둘러싸인 잠 못 이루는 밤의 도시 시애틀, 이곳에서 이화 동창은 팬데믹으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크고 작은 만남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2022년에는 신년회로 만남의 장을 열었고, 3월과 10월에는 음악에 조예가 깊은 1978년 정외과 졸업 박명호 동문의 음악 강연으로 슈베르트와 차이코프스키의 작품과 생애를 알아보며 함께 음악 세계로의 여행을 떠났다. 이 음악 강연은 이대 동창뿐 아니라 다른 한인들에게까지 음악 감상의 기회를 넓혔고 참석자들로부터 1700불이 넘는 기부금도 받았다. 소그룹 모임으로는 골프반과 합창반이 정기적 만남을 지속해 왔다. 합창반은 지난 추석에 이곳의 Edmonds Senior Center의 행사에 초대받아 아름다운 목소리와 화음으로 이화의 이름을 빛내었으며, 골프반은 12월 멕시코로 골프

여행을 떠나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2022년 마무리는 12월에 있었던 송년회로 멋지게 막을 내렸다. 67명의 동문과 부군들이 함께 하여 맛있는 식사와 함께 이화여대 역사에 대한 퀴즈와 푸짐한 상품으로 즐겁고 마음 푸근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타할머니와 산타할아버지 선발대회에서는 동문과 부군들이 기지와 순발력을 발휘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즉석에서 멋진 산타할머니, 산타할아버지로 변신하여 그동안 팬데믹으로 겪었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한방에 날려버리고 끝없는 웃음메아리를 남겼다.

시애틀 지회는 매년 장학금 지급과 불우이웃 돕기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2022년에도 국제재단에 2000불을 기부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 1명에게 1000불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Korean Emergency Fund에 1500불을 기부하여 한인 불우이웃가정 돕기에 참여했다.



2023년에는 전 동창을 위한 다양한 행사 - 신년회, 봄꽃놀이, 연 2회 음악강연 및 교양강좌, 여름 야유회, 송년회 등은 물론 소그룹을 통한 다양한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여 동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5개의 소그룹 - 합창반, 골프반, 사진반/등산반, 차선방(차와 선물이 흐르는 사랑방), Arts 모임 - 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그룹의 리더가 중심이 되어 한해의

계획을 만들고 활동을 이어간다. 이화 동창 시애틀 지회는 정기적 만남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문들의 친목 도모는 물론 이화의 이름을 널리 빛내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회소식

St. Louis 세인트루이스, MO 회장 최혜영 (86 생미)



1997년에 설립된 세인트루이스 지회는 11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일리노이주 세인트 클레어 컨츄리 클럽에서 설립 25주년 기념 파티를 축하객들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가졌다. 그날 새벽에 일리노이 주에는 마치 25주년 파티를 축하해 주는 듯 첫눈이 내려서 아름다운 설경

과, 복지연 지회장님들이 보내준 축하 메세지로 파티의 즐거움이 상승되었다. 맛있는 식사 후 경품 추첨시간에는, ‘꽝’ 표를 받아도 배꼽 잡고 웃으며 25년 동안 이어온 동창 간의 우애를 확인했다. 최경선 이사장님 (‘62 영문)과 부군 김승희 박사님께서 건강이 회복되어 함께 참석하셔서 지회원들 모두 감회가 깊었다. 또 2시간 넘는 거리에 계시는 전이화여대 김광식 교수님 내외분께서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고, 음료수와 디저트는 이수자 동창 (‘63 가정)과 정선주 동창 (‘68 성악)



두 분이 제공해 주셔서 감사했다. 2020년 초에 진선미 플러스 기금을 시작한 후로 국제재단 세인트루이스 장학기금 적립이 예년에 비해 배가 되었는데, 25주년 기념 파티 티켓 판매 수익금도 국제재단 장학기금에 적립할 것이다.

또한 최경선 이사장님 (‘62 영문)과 부군 김승희 박사님의 전적인 후원으로, 연말 신년 파티를 1월 18일 킹도 레스토랑에서 가졌다. 49년 동안 의료진료를 하고 은퇴하는 정선주 동창 (‘68 성악)의 부군 김덕진 박사와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남진우 동창 (‘73 간호학)의 부군 이신웅 박사를 축하했다. 이날 경품 추첨 시에는 동창과 이화 사위들의 2022년 혹은 평생을 통해 잊지 못하는 추억과 소원 등을 나누었다. 다시 태어나면 누구와 결혼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은 이화 사위님들은 망설임 없이 지금의 아내와 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화인의 자부심이 더욱 높아졌다.

Toronto 토론토, ON 회장 김수연 (86 물리)



토론토 지회는 팬데믹 제한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대면모임으로 많은 행사를 진행하며 반가운 동창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4월 23일에는 한명실(71 사회생활) 목사님의 “복음의 일꾼”이란 설교로 햇불회를 가졌으며, 2부는 국악의 신선함을 가져다 주고 있는 이상아 (13 한국음악) 동창의 우리 음악, 민요 메들리 등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단체 사진은 모두들 예쁜 스카프를 각기 다른 방법으로 장식하며 사진으로 남겼다.

5월 12일에는 토론토 한인 장학 재단과 연계한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at Toronto Scholarship” 첫 수혜자에게 장학금 \$2500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이 장학금은 차세대 리더쉽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여학생에게 수여되며, 앞으로 계속될 장학금 지원을 위해 도네이션과 Bake sale, 악세사리 세일 등등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한다. 6월 11일에는 녹음가득한 G. Ross Lord Park에서 많은 동창분이 모여서 즐거운 야유회를 했다. 각자 준비해 오신 여러가지 메뉴의 식사를 나누고, 2부 오락시간에는 비가 오락가락 조금씩 내리는 날씨였지만 때로는 우산속에서도 계획된 모든 순서와 재미있는 게임들을 모두 마치고 상품도 나누었다. 9월에는 햇불회를 “이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전과 다른 색다른 햇불회를 하였다. 이화표 비빔밥으로 시작하여

1956년대부터 2016년대까지 졸업하신 동창들의 대학 학창시절 사진을 모아 함께 보고, 시대별 노래를 함께 불러 보기, 또 대 선배님들의 학창시절과 후배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11월 27일의 연말파티는 “우리들의 빛나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화 동창들과 사위님들이 반짝이는 의상으로 함께한 기쁨 가득한 모임이었다. 1부 총회에서는 2023년도 회장 김수연 (86 물리) 동창이 선출되었으며, 또 올해 90세를 맞으신 유인희 (56 무용)과 김현순 (56 피아노) 두 동창분들의 깜짝 생신파티도 하였다.





올해 본교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되신 유인희(56 무용) 동창님 축하 순서, 그리고 모든 행사에 100%출석하시는 최인자(66 식품영양) 동창께 “이화사랑 특별상”을 전했다.

2부, 3부 싱어롱, 윤미경(93 사회사업), 이진희(07 북한학) 동창의 재치있는 사회로 이화동창과 사위님들이 모두 함께하는 웃음꽃 가득한 행사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다.

2023년 1월 7일 신입 임원들과 새해 계획을 세우는 모임을 가졌으며, 2월 11일에는 첫 햇불회를 최인숙(74 영어교육) 동창덕에서 29명의 동창들이 모인 가운데 정은주(85 법학) 전도사님의 “와서, 보라”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2부 순서는 이진희 (07 북한학) 동창의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라는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일 수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배웠다.

2023년에도 이화사랑이 가득한 임원진들과 화음회, 화관회, 기타반, 토요 걷기반, 또 새로 생긴 판소리반 등의 동호회들과 계획된 많은 행사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

Vancouver 밴쿠버, BC 회장 이혜숙 (85 건강교육)



2022 캐나다 밴쿠버 이화인 송년의 밤

‘이화인 송년회’를 하기로 정한 날인 11월 30일 아침, 간밤에 함박 눈이 내려서 큰 걱정을 했다. 감사하게도 오전이 지나면서 하늘이 갠다. 기온은 급상승하여 큰 길에 눈도 녹기 시작했다. 이 날의 자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두해 동안 대면 모임을 최소화하여 치르지 못했던 송년회 자리여서 정말 오랜만이었다. 이윽고 부부동반을 포함한 30여 동문들이 속속 도착하셨다. 이혜숙 동창회장님이 입구에서 반갑게 선배님들을 환영했다. 격조했으며 서로의 등을 토닥이고 두 손을 맞잡는 모습이 정겨웠다.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강봉숙 선배님의 유쾌 상쾌한 사회로 노래와 게임을 통해 한바탕 웃고, 즐거운 시간이 흘렀다. 마지막 순서는 동문회 막내인 필자가 몇 주에 걸쳐 야심차게 준비한 “추억의 사진 앨범을 넘기며”를 상영했다. 지난 북미 동문회에 참석했던 박혜정 선배님이 북미동문회에서 진행했던 행사가 보기 좋았다고 전해주면서, 우리도 선배들 추억의 사진을 모아서 송년회 자리에서 함께 볼 영상으로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제안하여 작업하게 된 것이었다. 1950, 60년대부터 제가 졸업한 해인 1990년대 말까지의 이화 교정에 서있는 진선미 주인공들의, 젊은 날의 장면들이 차곡차곡 모였다.

단아한 하얀 저고리에 검은 한복 치마를 입은 신여성의 우아한 자태에서부터 지금은 사라져버린 이대 운동장 계단을 가득 메운 이화인의 단체 사진, 흐드러지게 핀 하얀 목련의 빛깔보다도 더 빛나는 이화의 믿음직한 젊은 청춘들, 아름다운 오월

여왕들의 귀환 등 이제는 쉽게 보기 어려운 소중한 귀한 사진들을 보내주셨다. 빛바랜 추억의 사진이지만, 마음 한 켠에서만큼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우리 젊은 날의 초상을 감상하면서, 아련하게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났다.

한해의 시작과 마무리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아쉬움과 희망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벗이 있다는 것은 타향살이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인연이다. 비록 우리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응원의 메세지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깊은 정을 쌓아가고 있어서 감사하다. 바라는 것은 점점 연로하신 분들이 늘고 있어서 젊은 활력을 더해 줄 후배 동문들의 참여이다. 대한민국 여성의 진선미의 가치와 우아함을 품은 자랑스러운 이화인들이 함께 더욱 더 의미있게 도모할 수 있는 행사와 기획이 많아졌으면 하고 바란다.



글쓴이_김진아 (체대 무용 97)_단체 사진에서 맨 앞줄 초록색 상의입음

지회소식

Washington DC 워싱턴 디씨

회장 **최미나** (90 관현악)



워싱턴 DC 지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EWHA, 빛나고 빛났고 더 빛나는 우리”라는 주제로 Tysons Corner 소재 Marriott 호텔에서 2022년 총회 및 연말파티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에는 80명 이상의 동창님들과 이화 사위님들이 함께 하여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반가운 정을 나누고, DC 지회의 2022년 활동을 보고하는 시간을 통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감사한 일년을 돌아보았다. 또한 최미나 현 회장의 2023년 회장 연임을 인준하는 시간을 통해 다가올 2023년 DC 지회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연말 파티답게 지회 중창단이 빨간 스카프를 맞추고 나와 “The Christmas Song”을 부르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었으며, “히든 싱어, 이선희편”에 나왔던 최진향 동창님의 멋진 목소리도 영상과 함께 감상할 수 있었다. 이어진 테이블별 패션쇼에서는 파티 주제에 맞게



요청된 빛나게 반짝이는 옷들을 입고 멋진 포즈를 취해주어, 동창 간의 멋진 매력을 확인하며 2022년을 마무리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월 4일 이영은 동문 자택에서 2023년 DC 지회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여 30명 이상의 이사 및 임원진과 함께 2023년 지회 운영 방안과 이사회비 및 장학금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으며, 새로운 임원진 소개와 함께 새 이사장으로 김성혜 (보교 88) 동창을 인준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동창회를 위해 장학금을 개설해 준 김귀현 전 이사장 (영문 56)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식사를 나누며 동창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2023년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동창회는 회장 및 12명의 임원들과 함께 봄, 가을 특강과 장학 행사, 피크닉과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다음 대면 행사는 5월에 야외 피크닉으로 만난다.

Chicago 시카고, IL

서석영 (94 정외)



다운타운 시카고에 거주하는 동창들의 첫 모임이 2018년 11월에 시작된 이후로 잠시 주춤했으나,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4월 Zoom Meeting을 시작으로 11월에 Coffee Meet을 가졌으며, 2023년에는 신년모임을 갖고 영어 세미나, 벵룩시장 및 바베큐 모임을 계획중입니다.

특히 LinkedIn 그룹 (<https://www.linkedin.com/groups/14103531/>)을 통해 젊은 동창들과 네트워킹하고 있으며, 복지연 소속 시카고 지회 설립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문의: ewha.chicago@gmail.com)



동창회 장학금 / 기금 소식

2022 모교에 지급된 지회별/동창 그룹별 장학금/목적별 기금 현황

지회명	지급액	장학금 수혜자
남가주 지회	\$20,000	최혜린 (교육학과 3) 외 7 명
남가주 써머스쿨	\$5,000	Chaewon Kim, Sandria Tran
뉴욕 지회	\$30,000	신민주 (통계학과 마스터) 외 11명
동북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지회	\$15,000	한고은 (조형예술학부 4) 외 5명
디트로이트 (미시건) 지회	\$15,000	한시진 (간호학부 2) 외 5명
미네소타 지회	\$5,000	신수경 (호크마교양대학 1) 외 1 명
보스턴 지회	\$15,000	이소정 (소프트웨어학부 4) 외 5 명
볼티모어 지회	\$5,000	하세린 (화학생명분자과학부) 외 1 명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회	\$20,000	김난경 (경영학부 4) 외 6명
씨애틀 지회	\$7,500	전규빈 (조형예술학부 4) 외 2 명
알래스카 지회	\$2,500	이유나 (문헌정보학과 4)
아틀란타 지회	\$15,000	최은수 (경영학과 4) 외 5 명
워싱턴디씨 지회	\$20,000	송민진 (특수교육과 4) 외 7명
워싱턴디씨 써머스쿨	\$1,400	Yvonne Park, Clair Yang
토론토 지회	\$15,000	서진영 (화학생명분자과학부 4) 외 5명
휴스턴 지회	\$15,000	김하은(소프트웨어학부 4) 외 5 명
지회/그룹별 기금 TOTAL: \$206,400.00		

기타 목적별 기금 (기간: 01/01/2022 - 12/31/2022)	지급액
간호과학대 건축기금	\$10,000
의과대학 연구기금	\$25,000
의대 '72졸 의대발전기금	\$54,000
이화비전 2030+ 프로젝트	\$48,200
이화해외동창기금 (학관 리모델링/재건축프로젝트)	\$100,000
EGPP	\$50,000
기타 목적별 기금 TOTAL: \$287,200.00	

전체 TOTAL: \$493,600.00

지회별 로컬 장학금 현황

지회명	장학금 및 후원 내용
남가주 지회	지역 장학금 \$7,000, 한미여성회 (KAWA) \$1,000, 서울대 남가주 동창음악회 \$500 샌디에고 한국의 집 \$500
대뉴욕 지회	지역 장학금 \$10,000
보스턴 지회	지역 장학금 \$1,000, 선교비 \$500, 지역사회 후원금 \$500
북가주 지회	특별장학금 \$1,000, 우크라이나 난민성금 \$3,570
아틀란타 지회	한미 장학회 \$1,000, 우크레인 성금 \$1,200, 패밀리센터 \$500
워싱턴 디씨 지회	지역 장학금 \$2,000, 홀리스 쉼터 \$1,000, 빈민지역 아동들을 위한 책가방 기부 \$550 미전도지역 선교비 \$500
시애틀 지회	지역 장학금(University of Washington) \$1,000, Korean Emergency Fund \$1,500
클리블랜드 지회	Womankind \$300, Center for Domestic Violence \$300
토론토 지회	지역 여학생 장학금 \$2,500, 다민족 선교 연합회 (CMCA) \$436 Canadian Red Cross (터키, 시리아 지진 구호금) \$375
필라델피아 지회	New Vision Center (청소년 약물 중독 돕는 기관) \$1,500
휴스턴 지회	지역 장학금 \$2,000, 난민지원단체 'Life Tree Ministry' 1,000



GLOBAL HOPE FUND

이화의 세계화, 그 미래에 동창들이 함께 해주세요.

모교 이화의 역사는 137년전, 스크랜턴 여사께서 1명의 여학생을 가르치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이화 캠퍼스에는 2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인문/자연/사회과학, 예술, 간호, 의학학, 법학 등 전통적인 분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 사이버보안, 휴먼기계바이오, AI 와 같이 미래형 도전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화는 해외 유학생들이 선망하는 최고의 대학 중 한 곳이 되었습니다. 현재 재학생의 약 10%가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며,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많은 여학생들이 이화에 유학을 오고 싶어합니다.

지금의 이화가 되기까지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이 왜 우리 이화인들에게 주어졌는지 그 뜻을 헤아려,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합시다. 지난 날의 우리처럼 현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꿈을 심어 주고 이화의 뛰어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세계 여성의 연대와 발전에 함께 하고자 하는 동창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화국제재단의 Global Hope Fund는 이화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개발도상국의 여성 인재들을 위한 장학기금입니다.



참여방법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 University (IFEWU) 앞으로 수표를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수표 메모란에 **GHF라 쓰시고 한글 성함, 졸업학과와 연도**를 적어주세요. 수표 이외의 방법은 이화국제재단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https://ewhafoundation.com/how-to-donate>)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 University • 475 Riverside Drive #1500 • New York • NY 10115
www.ewhafoundation.com • ewhafdn@gmail.com or Jpark@ewhafoundation.org • Tel.212.864.5759

연도별 총회 개회 지회

년도	지회명	지회장
1976	Washington D.C	김정자(62 가정)
1977	New York	이해경(50 음악)
1978	Chicago	전신애(65 영문)
1979	New York	장한희(53 기독교)
1980	Detroit	김신형(49 가정)
1981	S.California	김성자(61 교육)
1982	Chicago	최순자(66 의과)
1983	New York	조 연(61 약학)
1984	Philadelphia	장창희(62 가정)
1985	Washington D.C	한순정(58 미술)
1986	N.California	이명희(62 교육)
1987	New York	이부자(60 사회)
1988	Toronto	여정자(67 기독교)
1989	Chicago	최경혜(60 법학)
1990	S.California	이희성(60 영문)
1991	N.California	최충자(62 사회)
1992	Detroit	김정숙(62 의과)
1993	Houston	임예자(64 사학)
1994	New York	임병대(60 교심)
1995	Washington D.C	오성미(64 영문)
1996	Boston	김경애(70 의학)
1997	Toronto	정인영(68 물리)
1998	Atlanta	김은숙(68 사학)
1999	Chicago	윤미혜(64 사사)
2000	S.California	김대훈(60 화학)
2001	Detroit	이해경(69 신방)
2002	Orland	하명숙(66 체육)
2003	N.California	강영자(64 기독교)
2004	Houston	김성혜(72 식영)
2005	Cleveland	이선희(70 교심)
2006	Toronto	강선희(59 화학)
2007	New York	최성남(70 약학)
2008	Seattle	이정형(63 약학)
2009	Denver	이미옥(68 국문)
2010	S.California	오영애(74 장식미술)
2011	Boston	조수현(76 수학)
2012	Vancouver	강유순(67 약학)
2013	Washington D.C	오혜경(72 영문)
2014	N.California	제갈숙경(79 기약)
2015	Atlanta	김정희(79 약학)
2016	Houston	김명옥(75 경영)
2017	New York	박영숙(86 경영)
2018	Toronto	박현주(89 물리)

2019	Seattle	신경림(80 장식미술)
2020	N.Texas	신동진(85 섬유예술)
2021	Detroit	황수영(89 화학)
2022	S.California	정현숙(87 체육)
2023	Boston	김지영(82 교육)

2023 북미주 지회연합회 지회장

주	지회명	지회장
AK	Alaska	김명순(62 간호)
CA	N. California	이해연(76 서양화)
CA	S. California	정현숙(87 체육)
CO	Denver	김선희(94 문헌정보)
GA	Atlanta	김경원(81 가정관리)
HI	Hawaii	이상희(90 불문)
MA	Boston	김지영(82 교육)
MD	Baltimore	이진숙(70 식품영양)
MI	Detroit	오주리(82 섬예)
MN	Minnesota	김정은(90 체육)
MO	St. Louise	최혜영(86 생미)
NY	New York	권순미(85 불문)
OH	Cleveland	허선우(04 회화판화)
OR	Portland	김미진(79 도예)
PA	Philadelphia	오성실(68 영문)
TX	Houston	양영희(93 조소)
TX	N. Texas	김경은(93 행정)
WA	Seattle	신인선(85 불어교육)
	Washington D.C	최미나(90 관현악)
CANADA	Montreal	김명원(92 수학)
CANADA	Ottawa	정혜경(92 교육행정)
CANADA	Toronto	김수연(86 물리)
CANADA	Vancouver	이혜숙(85 건강교육)

2023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고문

오혜경 (72 영문), 유덕향 (71 약학), 장계원 (76 도서관학)

2023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임원

- 회 장 : 김지영 (82 교육)
- 부 회 장 : 이해연 (76 서양화)
- 총 무 : 공정원 (83 영문)
- 제 1서기 : 이수용 (06 생물)
- 제 2서기 : 최혜영 (86 생미)
- 회 계 : 윤채린 (01 소비자 경영)
- 홍 보 : 서석영 (94 정외)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일정

10월 26일 (목)	3:00 PM - 10:00 PM	호텔 체크인 4PM 북미주 지회연합회 등록 26일 3PM-10PM, 27-28일 7AM-10PM
	6:00 PM - 8:00 PM	북미주 지회연합회 지회장 미팅
	8:00 PM - 10:00 PM	북미주 지회연합회 정기이사회
10월 27일 (금)	7:00 AM - 8:30 AM	아침식사
	10:00 AM - 11:00 AM	오전 클래스 “활기를 북돋는 아침요가”
	1:00 PM - 2:30 PM	오후 클래스 “타인종과 더불어 사는 Noblesse Oblige”
	4:10 PM - 5:00 PM	이화 합창 연습
	5:00 PM - 6:00 PM	각 지회 탤런트쇼 리허설
	6:00 PM - 10:00 PM	총장님과의 만찬, 각 지회 탤런트쇼
10월 28일 (토)	7:00 AM - 8:00 AM	아침식사
	8:00 AM - 10:00 AM	총회
	10:00 AM - 11:00 PM	오전 클래스 “Zen Tangle Art Class”
	1:00 PM - 2:00 PM	오후 클래스 “칼림바- 아프리카 피아노 강습”
	2:30 PM - 3:30 PM	오후 클래스 “보스턴에서의 미술여행”
	4:10 PM - 5:00 PM	이화 합창 연습
	5:30 PM - 6:00 PM	리셉션
	6:00 PM - 10:00 PM	북미주 지회연합회 대만찬
10월 29일 (일)	7:00 AM - 8:30 AM	아침식사
	8:30 AM - 9:30 AM	예배
	9:30 AM - 10:30 AM	총장님과의 대화
	10:30 AM - 11:30 AM	작별인사, 체크아웃

관광안내

근교 관광 일일관광	10월 27일 (금) 9:30 AM - 4:00 PM	Boston 관광: Wellesley College, Tremont Methodist Church, Trinity Church, Harvard University, MIT, Boston Harbor (Water Front), Boston Common...
	10월 28일 (토) 10:30 AM - 4:00 PM	Concord 관광: Alcott's Orchard House(the author of 'Little women'), Concord Museum, Concord Center, Old North Bridge, Thoreau's Cabin (the author of Walden), Walden Pond...
	근교관광 참가비: \$100 / Day (차량, 기사, 입장료, Tip 포함, 점심식사비 포함되지 않음 -각자 자유로이 선택)	
뉴잉글랜드 관광 2박 3일	10월 24 - 26일 (화-목) 10/24(화) 8AM Marriot 출발	White Mountains, Newport, Plymouth관광: White Mountain Cog Railway(툼니바퀴기차), Newport the Breakers(별장), Newport Cruise, Plymouth the Mayflower ship...
	뉴잉글랜드 관광 참가비: \$750 (차량, 기사, 가이드, 각종 서비스 팁, 일급호텔, 호텔2인1실, 일정 내 모든 식사 포함) 40명 기준 (40명 이하일 경우 가격 변경 가능) 여행 전날 도착 1박 (\$179별도) 각자 Marriott Newton Hotel 예약하실 것	

모든 참가비는 1인 기준입니다.

(관광안내 문의 : 백정희 T. 339-927-2179)

사정에 따라 일정이나 가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 “Back to the Beginning” Boston 참가 신청서

이름	한글		영문			
거주지 주소	Street					
	City		State		Zip	
연락처	Cell Phone		Home Phone			
	Email		소속지회			
졸업학과			졸업년도			
동행자 수	본인 제외	명	동행자 이름			

행사날짜	행사내용	참가비	인원수	합계
10월 26일 (목)	총회참가 등록비*	\$30		
10월 27일 (금)	아침식사 (\$50 value/\$30 Boston 지회 지원)	\$20		
	오전 클래스 “활기를 복돋는 아침요가”	Free ****		
	오후 클래스 “Noblesse Oblige”	Free		
	총장님과의 만찬	\$120		
10월 28일 (토)	아침식사 (\$50 value/\$30 Boston 지회 지원)	\$20		
	오전 클래스 “Zen- tangle Art Class”	Free		
	오후 클래스 “칼림바강습”	Free		
	오후 클래스 “보스턴에서의 미술여행”	Free		
	총회 대만찬	\$150		
10월 29일 (일)	아침식사(\$50 value/\$30 Boston 지회 지원)	\$20		
관광신청 원하는 관광/여행에 신청자 인원수 표기	시내관광 (10/27 금)	\$100		
	시내관광 (10/28토)	\$100		
	뉴잉글랜드여행 (10/24-26화-목) ***	\$750		
			총액**	

* 8월 31일 전까지 참가등록 신청서 참가등록비 면제해 드립니다.

** 참가비는 꼭 check으로 쓰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참가비가 결재되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뉴잉글랜드 여행 전 날 (10월 23일 월요일) 도착하실 분은 Marriott Newton 호텔에 각자 예약해 주세요. (호텔 비용은 여행비에 포함되지 않음)

**** 모든 클래스는 참가비가 없지만, 참가여부와 인원수를 꼭 표기해 주세요.

총만찬 Vegetarian 메뉴 선택

*전체메뉴: 총장만찬 (닭/연어 콤비네이션) 대만찬 (소고기/새우 콤비네이션)

총장만찬 Vegetarian 메뉴 선택	Wild Mushroom Strudel		Vegan Lasagna	
대만찬 Vegetarian 메뉴 선택	Wild Mushroom Strudel		Vegan Lasagna	

참가신청마감 (9월15일) 신청문의	신청서와 check을 함께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반드시 check for란에 이름, 졸업년도, 학과, 지회를 기재해 주세요.) Payable to: BEWUA (Boston Ewha Womans Univ. Alumnae) 주소: Boston Ewha Alumnae, P.O. Box 33, Wayland, MA 01778 온라인 등록: https://ewhana.org/ or QRCode를 사용해주세요. (온라인 등록도 참가비는 check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호텔예약마감 (9월15일)	Boston Marriott Newton 2345 Commonwealth Avenue, Newton, MA 02466 (Tel: 617-969-1000) https://www.marriott.com/en-us/hotels/bosnt-boston-marriott-newton/overview/ 전화 혹은 온라인 예약시: Group Code “EUREURA”, \$139/ 2인1실기준	
교통 공항-호텔	BOS 공항과 16 마일 거리에 위치, 택시 또는 우버 이용 * 호텔 무료 주차	

* 참가 문의 : ewhaboston2023@gmail.com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03760
TEL : 02-3277-3386, 3387 FAX : 02-393-9141
www.ewhaalum.or.kr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Korea
TEL : (82-2) 3277-3386, 3387 FAX : (82-2) 393-9141
www.ewhaalum.or.kr

사랑하는 북미주지역 이화동창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19대 총동창회장 이명경입니다.

모교와 동창회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화 137년의 역사를 이끌어 온 진선미의 이화정신, 즉 나눔과 섬김, 봉사의 마음을 항상 되새기며 총동창회는 새로운 소망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는 지난 2001년 시카고의 일부 동창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소위 '북미주동창회(북미주총동창회에서 2009년 북미주동창회로 명칭 변경)'로 인해 '북미주지회연합회' 소속 동창여러분께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는 총동창회, 국제재단 및 대학과 오랜 기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정통성을 가진 단체로써, 총동창회 회칙에 따라 북미주지역의 공식 지회연합회로 인정한 단체이며, 총동창회 동창회보의 '이화동창' 로고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모교 및 총동창회의 이 같은 입장은 역대 총동창회장과 총장 명의로 북미주지역 동창여러분께 전달된 여러 서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각 서면의 간략한 요약 및 해외지회 관련 동창회 회칙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미주 이화동창 여러분,우리는 이화가 미래를 향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화합과 조화 속에서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총동창회는 북미주의 모든 동창이 한 마음으로 이화동창이라는 공동체로써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화가 한국의 명문을 넘어 세계의 명문으로 도약하는데 든든한 견안차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월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서 반갑게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동창들께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이 명 경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慶

2023년 보스턴 개최

祝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Rhode Island

37대 한인회장 지상욱



이화여자 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 연합회



축 보스턴 지회 주최
2023.10.26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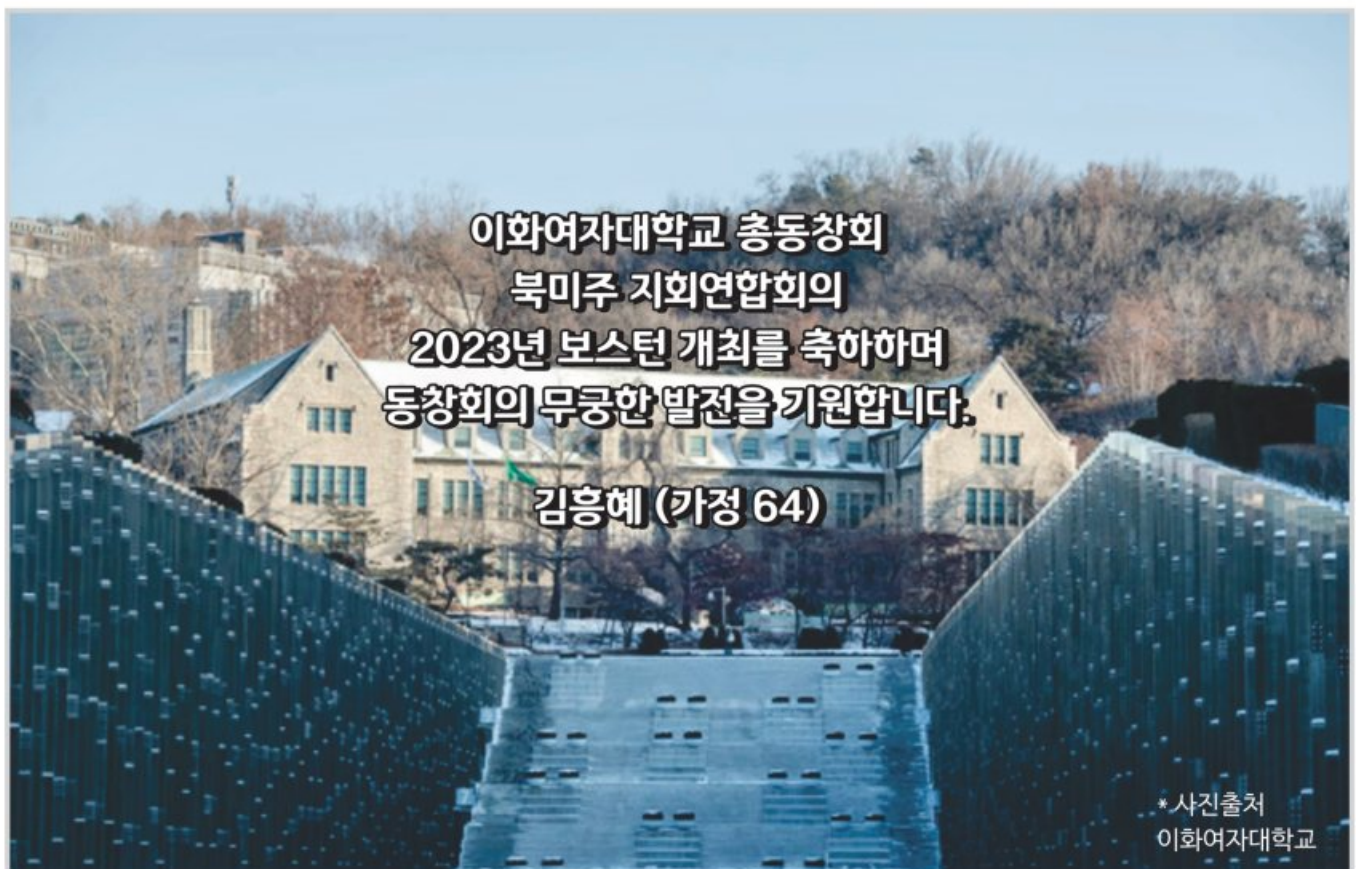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로코코 시대의 우아한 건축물과
어우러진 공연 예술, 인상파 미술 기행,
예술의 기운이 넘치는 파리로
6박 7일 여행을 떠나보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2023년 보스턴 개최를 축하하며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길자 (의학 66), 정정욱



*Phoenix Business Computing is proud
to support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Boston.*

603.622.5012 | phoenixbc.com

EWHA WOMANS
UNIVERSITY

보스턴 지회는 크고 작은 정성을 모아 2023 총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장 : 김지영 (82 교육)
부회장 : 공정원 (83 영문)
서기 : 이수용 (06 생물)
회계 : 윤채린 (01 소비자 / 경영)
이화 사랑 후원금 모금 : 백정희 (74 간호)
비영리 재단 등록 : 유미선 (94 행정)
광고 : 이혜원 (70 약학), 이길자 (66 의학)
이화 에이프런 디자인 : 박용은 (80 생활미술)
회보 표지 & 광고 디자인 : 공정원 (83 영문)
회보 교정 : 황성미 (75 식품영양), 이수용 (06 생물)
홍보 영상 & 호텔 : 이계영 (01 종교교육)
여행 기획 : 백정희, 김경애 (70 의학), 김명원 (83 교육)
등록 : 신은경 (88 법학), 정진미 (93 불문), 정규혜 (95 도서)
기술 : 강주경 (12 약학), 김정연 (01 불문)



참 좋은 이사

보스턴 뉴잉글랜드 지역
귀국 / 타주 / 로컬 이사서비스



대표 정대훈
Tel. 978-461-2424

DR. BRIAN H. YOON
DMD

GENERAL AND ESTHETIC DENTISTRY

Tel (978) 655-1583
drbrianhyoon@gmail.com

820A Turnpike Street
North Andover, MA 01845
www.brianyoondmd.com

www.atomy.com/us
www.atomy.com/mx
www.atomy.com/kr

Scotty's of Lexington Hair Salon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atom美
에티미

MYONG SHELDON

Cell: 781-922-0698
Shop: 781-861-1277
myingsheldon@gmail.com

125 Mass Ave. Lexington, MA 02420
165 New Boston St. U-289, Woburn, MA 01801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2023년 총회

이화여대와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황성미 (식품영양 75), 최홍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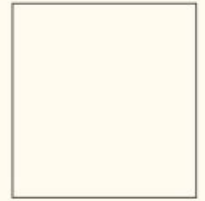


BOSTON

Boston Chapter of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P. O. Box 33
Wayland, MA 01778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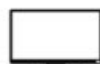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북미주지회연합회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미주 지역의 이화여자대학교 동창모임으로서,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역 동창회를 대표하는 공식 명칭입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는 본교 총동창회에 등록되어 있는 23개 북미주 지회의 연합을 의미하며 매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고 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창 여러분께서는 각 지역의 지회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진선미'의 이화정신을 계속 간직하고 이화인으로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편된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을 통한 이화 그린 네트워크 안에서 긴밀히 연결된 이화인의 힘을 느끼고 교류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whana.org



@ewhanaorg



[ewhanaorg](https://www.youtube.com/ewhanaorg)